

# 파생접미사 ‘-질’의 생산성과 의미\*

- 인터넷상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

이 수 연 \*\*

## I. 서 론

단어가 형성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단어 형성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던 단어 형성 요소들을 가지고 파생과 합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면, 파생과 합성의 과정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국어에는 파생 접미사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 중에서도 접미사가 어기의 의미와 품사를 바꾸며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는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접미사 중에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과거에는 많이 쓰였던 접미사가 현대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현대에 와서 다시 많이 쓰이게 된 접미사도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에 새롭게 많이 쓰이게 된 접미사들 중에서 ‘-질’에 주목하여 그 생산성과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일상대화화 인터넷 게시판들 중심으로 도구나 행위 명사에 ‘-질’이 결합하여 파생된 새로운 단어들<sup>1)</sup>이

---

\* 이 논문은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과정 4년

1) ‘-질’이 접미하여 파생된 파생어를 앞으로 ‘-질’ 파생어’라 부르기로 한다.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들 중 몇 개는 신문 기사나 뉴스 텍스트 등의 공식적인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어를 그대로 글로 옮겨 놓는 친목도모용의 게시판이나, 개인 일기장과 같은 게시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상의 신조어는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질’이 접미하여 새로운 단어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몇 개 이상의 단어가 만들어져야 ‘많다’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단어는 어무나 만들어내기만 하면 단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동안은 파생접사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기대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산성의 정도를 파악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전산언어학의 발달과 대규모 말뭉치의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언어자료를 특정 목적에 따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파생어의 연구에 있어 생산성의 파악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본고의 II장에서는 신조어 ‘-질 파생어’의 생산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기존 방법들의 유용한 점을 받아들이고,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질’ 파생어로 나타난 단어들의 용례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질’의 생산성을 측정해 볼 것이다.

새로이 생산된 단어들에서의 ‘-질’의 의미는 기존의 파생접사 ‘-질’의 의미와 차이를 가진다. 파생어의 경우, 어기와 파생접사의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파생어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기와 파생접사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질’ 파생어는 예전부터 그 생산성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그 의미도 비교적 세밀하게 연구되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파생접사 ‘-질’은 크게 5가지의 의미로 분류되는 어기(도구, 행위(직업), 신체, 물질, 의성의태어)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의 어기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는 특성을 가진다. 파생접사 ‘-질’이 새롭게 취하는 어기의 특성과 ‘-질’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II. 파생접미사 ‘-질’의 생산성

### 1. 생산성의 의미와 측정 방법

많은 신조어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의 연구에 있어서 그 파생접사가 새로운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생성해내고, 그 단어들이 언중 사이에서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의 파생접사가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측정해볼 수 있다. 흔히 하나의 파생접사가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 낼 때, 그 접사를 ‘생산적이다’ 혹은 ‘생산성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파생접사가 파생시키는 단어의 개수가 생산성 파악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 접사의 생산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파생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에 등장하는 ‘-질’ 파생어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어느 어기에나 자유롭게 접미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생산성을 ‘언어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무한하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슐팅크(Schultink)(1961)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그러나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무한하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화자가 파생 규칙에 의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암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언중의 직관에 의존하여 파생 접사의 생산성을 조사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파생 접사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하나의 단어 형성소를 파생접사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논의가 김창섭(1995: 170)에서 이루어졌다. 위 논문에서는 파생어를 세 개 이

2) 강범모, 차준경(1996: 3)에서 재인용.

상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어 형성소는 사전에 접사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 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하나의 단어 형성소를 파생 접사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어 수이므로 단순히 파생접사가 ‘세 개 이상’의 단어를 만든다고 해서 그 파생접사가 ‘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질’은 수십 개 이상의 단어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이므로 위 기준을 ‘-질’의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남호(1988: 3~11)는 신문, 잡지, 소설 등에서 나타난 신조어의 수를 이용하여 접미사가 만드는 신조어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생어를 관찰함에 있어 연구자가 직접 어기와 접미사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의 문법성과 수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신문, 잡지, 소설에서 채취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소설 48종을 사용하여 일종의 말뭉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신조어가 등장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결국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생산성을 파악하였다. 구분관(1990: 26)은 기존의 생산성 연구가 화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화자의 단어생성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화자가 주어진 파생접사에 대해 새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접사는 생산적이라고 하였다. 화자의 언어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논문과 같이, 제보자를 선정하여 질문을 하는 방법은 방언 연구 방법으로서 적절할 수 있지만 본고의 논의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만 어절 이상의 대용량 말뭉치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수치로 나타내고, 파생접사들 간의 비교를 행한 작업이 차준경(1995)에서 이루어졌다. 말뭉치 속에서 한 번 나온 단어가 신조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접사를 사용하여 한 번 나온 단어의 수와 주어진 접사를 가지고 있는 전체 단어의 수를 비율을 통해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바이엔(Baayen)(1989)<sup>3)</sup>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산성이 있는 단어형성규칙

3) 이하 Baayen의 방법론은 모두 차준경(1995: 14~20)에서 재인용하였다.

에서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이광호(2005)에서는 차준경(1995)의 방법을 받아들여 ‘-질’ 파생어들을 신어, 지속어, 소멸어의 관점에서 논하고, ‘-질’이라는 파생 접미사가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연결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차준경(1995)의 방법을 받아들여 ‘-질’ 파생어의 생산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제 자료의 적용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2. 파생접사 ‘-질’의 생산성의 계량적 측정

차준경(1995: 14~16)에서는 어떠한 표본에서 주어진 접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의 수에 대해, 오직 한 번만 나온 단어의 수의 비율로써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P = \frac{n_1}{N}$$

여기서 P는 생산성 정도,  $n_1$ 은 오직 한 번 나온 단어의 수, N은 말뭉치에서 주어진 접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이다. 이 수식 자체는 주어진 접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 나온 단어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말뭉치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한 번 나온 단어 중에서 신조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 내는 단어형성 규칙이 상대적으로 생산적이라는 생산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방법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말뭉치를 이용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파생어의 생산성 연구를 위해 본인이 직접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필요한 경우 사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단어에는 한계가 있고, 사전은 필연적으로 시대에 뒤진다는 맹점을 가진다. 사전에는 실제 쓰이지 않는 단어 들인 사어나 고어가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자 하는 대상인 신조어들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여러 분야의 텍스트를 골고루 모아 놓은 말뭉치는 그 크기만 충분하다면 개인의 직관으로 찾아낼 수 없는 많은 언어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언중의 언어 능력의 측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이 방법이 단어형성규칙의 생산적인 측면을 포착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적인 단어형성규칙은 신조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규칙이라는 점을 잘 반영한 방법인 것이다. 또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론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2000~2003)’<sup>4)</sup>를 사용하였다.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는 모든 단어가 형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파생접사만 골라내어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형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자질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모노콩크(MonoConc)’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질’과 파생접사라는 자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파생접사로 쓰이는 ‘-질’만 검색되므로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단어를 선별할 필요가 없다. 즉, ‘그러질 못했다’의 ‘-질’과 ‘부채질’의 ‘-질’을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형태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조어된 파생어들<sup>5)</sup>의 예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파생어의 출현빈도는 모두 수작

4) 21세기 세종 계획 홈페이지(<http://www.sejong.or.kr>)에서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를 찾아볼 수 있다.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는 한 해당 200만 어절의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로, 그 규모나 구성의 면에서 한민족의 다양한 언어활동을 골고루 담고 있는 자료이다. 연도별 어절 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도	어절 수	구성	특색
2000년	200만 어절	문어 79건 구어 없음	북한 자료도 포함(2001년 이후)
2001년	200만 어절	문어 92건 구어 9건	영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도 포함.
2002년	200만 어절	문어 59건 구어 58건	현대 국어 표준어를 중심으로 소설, 백과사전, 각 분야 신문기사 등의 문어자료와 TV토론, 강연, 일상 대화나 독백의 전사를 통한 구어로 구성.
2003년	250만 어절	문어 91건 구어 58건	

업으로 진행하였다. <표 1>은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질 파생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표 1>의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빈도이다.

<표 1> 형태 의미 말뭉치에서 검색된 ‘-질’ 파생어

가위질(12), 간첩질(1), 강도질(7), 걸레질(6), 결눈질(31), 계집질(1), 고개질(1), 고쓰 가이질(1), 고자질(1), 고태질(1), 곡괭이질(1), 곡식질(1), 곡예질(1), 곤장질(2), 공비 질(1), 과객질(1), 팽이질(1), 교수질(1), 구역질(19), 그물질(11), 기름질(1), 기생질 (2), 피움질(1), 끌질(3), 나무질(1), 낚시질(24), 난도질(9), 낫질(4), 노략질(5), 노질 (9), 농간질(1), 농약질(2), 농탕질(1), 눈도둑질(1), 눈칼질(1), 다듬이질(5), 다리미질 (2), 다리질(12), 닭달질(2), 닭구질(1), 닭음박질(1), 닭금질(3), 당골질(2), 대못질(6), 대패질(1), 더듬질(1), 도끼질(7), 도둑질(46), 도듬질(1), 도리깨질(6), 도리질(10), 도 리질(4), 도마질(1), 도망질(6), 도배질(2), 도적질(15), 돌맹이질(2), 돌팔매질(4), 동 냥질(1), 되새김질(7), 두방망이질(1), 뒷거듬질(1), 뒷걸음질(24), 뒷발질(3), 드잡이 질(1), 등장질(1), 딸꾹질(1), 땀질(8), 땀질(1), 뜨개질(3), 마구질(1), 마당질(1), 마되 질(2), 마루걸레질(1), 마른걸레질(1), 마름질(3), 맛담배질(1), 망치질(10), 맛담배질 (2), 맛불질(1), 매질(24), 맷돌질(2), 먹질(1), 면도질(1), 모듬매질(1), 목수질(1), 못 질(11), 몽둥이질(2), 무두질(1), 물걸레질(1), 물뽀질(1), 물뽀질(1), 민장질(1), 바람 질(1), 박음질(2), 발길질(32), 발버둥질(5), 발싸움질(1), 발질(3), 밥도적질(1), 방망 이질(8), 방아질(1), 방포질(1), 벼타작질(1), 보리타작질(1), 배질(3), 부삽질(1), 부채 질(52), 붓방아질(1), 붓질(1), 비료질(3), 비역질(2), 비질(4), 발길질(1), 빗자루질(5), 빗장질(1), 빗질(9), 빗질(1), 사매질(2), 사포질(1), 삽질(7), 샷대질(15), 상침질(2), 서방질(6), 선생질(3), 소꿉질(1), 손가락질(48), 손길질(1), 손뜨개질(8), 손바닥질(1), 손부채질(1), 손질(4), 수적질(1), 손가락질(4), 손갈질(2), 술국이질(1), 술질(1), 스파 이질(1), 승강이질(1), 시침질(3), 실랑이질(1), 십장질(1), 싸움질(8), 씨래질(4), 썰매 질(1), 썩썩질(1), 앞걸음질(1), 양색시질(1), 양중이질(1), 양중질(1), 양치질(31), 양 회질(1), 어장질(5), 얼레질(1), 역적질(2), 연애질(2), 옆걸음질(1), 옆눈질(1), 오입질 (3), 왕대못질(4), 외약손질(1), 외입질(1), 육질(4), 용두레질(1), 용두질(3), 용틀임질 (1), 우김질(3), 옷비료질(1), 원장질(5), 육태질(2), 이간질(7), 인두질(6), 임금질(3), 입방아질(1), 잇솔질(5), 작당질(1), 잠상질(3), 잡색질(1), 장난질(14), 장담음질(1), 재봉질(5), 잔걸음질(1), 쟁기질(4), 저울질(30), 전화질(5), 질구질(2), 젓가락질(4), 조리질(2), 조방질(2), 줌도둑질(1), 좃대질(1), 좃대질(1), 주먹질(23), 주관질(1), 줄 달음질(6), 줄칼질(1), 중질(4), 지계질(3), 찜질(3), 창녀질(1), 채찍질(10), 청축질(2), 초벌질(1), 총질(7), 충동질(7), 칫솔질(6), 칼질(11), 키질(1), 탈피질(2), 톱질(4), 통 방질(1), 투망질(1), 투서질(2), 투식질(1), 투정질(2), 투족질(1), 팔매질 (3), 폐약질(1), 펌프질(1), 편지질(1), 풍구질(1), 한숨질(1), 해적질(1), 행주질(1), 헐 레질(1), 헛구역질(11), 헛발질(1), 헛발길질(1), 헛입질(1), 헛주먹질(1), 헤엄질(1), 행굴질(1), 험잡질(2), 호미질(8), 호통질(1), 홀태질(1), 화냥질(1), 화석질(1), 화적질 (2), 화투질(1), 회태질(1), 흘김질(1), 회학질(1)
--

5)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에는 ‘아이원장질’, ‘이원장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기의 형태 분석이 불분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두 ‘원장질’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 파생어는 전체에서 1020번 출현하였고, 종류는 242종이다. 그 중에서 한 번만 나온 단어는 121종이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된 ‘-질’ 파생어를 그대로 바이엔(Baayen)의 방법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850만 어절의 말뭉치가 대용량이기 는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을 모두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엔(Baayen)의 방법에서는 말뭉치에 한 번 출현하는 단어는 신조어로 보고 생산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으나 위 결과에서 보듯 ‘고자질, 딸꾹질, 사포질’ 등 익숙한 단어들 이 신조어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다. 말뭉치가 실제 언어생활 및 언중의 직관을 모두 반영하는 자료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말뭉치에서 한 번만 나온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전에 실려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선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말뭉치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가 『표준 국어 대사전』<sup>6)</sup>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 2> 형태 의미 말뭉치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 중,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타나는 ‘-질’ 파생어

계집질, 고자질, 곡식질, 과객질, 팽이질, 나루질, 농간질, 농탕질, 달구질, 달음박질, 대패질, 더듬질, 도마질, 동냥질, 두방망이질, 딸꾹질, 땀질, 마른걸레질, 맞불질, 먼도질, 무두질, 물걸레질, 붓방아질, 붓질, 사포질, 소꿉질, 수적질, 승강이질, 실랑이질, 주관질, 키질, 투망질, 편지질, 풍구질, 해적질, 행주질, 화냥질, 회학질
--

형태 의미 말뭉치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 중, 『표준 국어 대사전』에 도 나타나는 ‘-질’ 파생어는 모두 40개이다. 이것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조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질’ 파생어는 전체 1020종, 종류 242종, 한 번 출현하였고, 신조어로 여길 수 있는 단어 81종이다. 이 자료에서 바이엔(Baayen)의 수식을 적용하면 파

6)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하였다.



생접미사 ‘-질’은 0.0794라는 생산성을 가진다.

물론 생산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치 몇 이상이 생산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위 연구에서는 파생접미사 ‘-질’ 하나의 생산성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파생접미사와 비교하여 ‘-질’의 생산성이 크거나 작다고 할 수도 없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측정이 개별 파생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파생접미사의 기본적인 역할의 수행 여부를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직관적으로 생산적이라고 여겨왔던 파생어 ‘-질’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실제 말뭉치를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 3. 인터넷상의 신조어의 생성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새로이 활발하게 생성된 ‘-질’ 파생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에는 비교적 최근인 2004년과 2005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2004년과 2005년의 말뭉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실제 대화를 통해 ‘-질’ 파생어를 수집하고, 용례를 기록해 두었다. 조남호(1988: 3~5)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생어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자신의 직관만으로 단어를 조어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법성과 수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면서도 한번에 많은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학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일반 화자들의 언어 사용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파생어의 공식적인 모습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서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들어간 개인의 일기에서부터, 게시판의 글, 신문기사, 책의 본문까지도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7) 차준경(1995)에서는 국어의 대표적인 접미사 10개의 생산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은 명사 파생 접미사 ‘-아’였고, 수치는 0.1194였다. 파생접미사 ‘-질’은 0.07959로 3번째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말뭉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형태 분석이 되어 있거나, 자질로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접사를 통한 검색은 불가능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수집된 ‘-질’ 파생어의 용례와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볼 때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5개의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구글)를 통해 검색해 본, 최근에 생성된 ‘-질’ 파생어와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 단어들이 어느 정도 언중의 동의를 받고 활발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는 인터넷에서 파악할 수 없다. 인터넷이 담고 있는 전체 어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서 ‘-질’ 파생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창섭(1995: 170)의 신조어 판단의 양적 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용례를 찾아 낼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신조어로 여기도록 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질’ 파생어는 다음과 같다. 각 단어의 용례는 <붙임>에 수록하였다.

<표 3> 새롭게 쓰이는 ‘-질’ 파생어

감상질, 공부질, 그림질, 글질, 돈질, 드라마질, 디씨질, 디카질, 리모콘질, 마우스질, 만화질, 메일질, 문자질, 백수질, 사랑질, 삼질, 세이질, 싸이질, 애정질, 운동질, 옷대질, 음악질, 이혼질, 인란질, 인터넷질, 자랑질, 자판질, 책질, 초딩질, 춤질, 카드질, 카트질, 클릭질, 키보드질, 테러질, 팬질, 펄질, 포샵질, 핸드폰질, 휴대폰질, 헛질

이 단어들은 모두 기존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나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타나지 않은 예들<sup>8)</sup>이다.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일기나 친목도모의 게시판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단어들은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언중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위 단어들을 검색해 보았을 때,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는 없었기 때문에, 바이엔(Baayen)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은 0으로 나타난다.

8) 이 중에서 ‘돈질’과 ‘삼질’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실려 있으나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뭉치를 한정할 수 없고 단어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얻어진 예들에 바이엔(Baayen)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파생접사 ‘-질’이 새롭게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모두 지난 2년 안에 생성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질’의 생산성이 최근에 새롭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산성은 항상 같은 크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생산적이었던 접사가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과거에는 생산적이지 못했던 접사가 현대에는 생산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질’은 과거에도 생산적인 접사로 인정받아 왔고, 말뭉치에서도 많은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었으며, 현대에도 생산성을 가지고 신조어의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II. 파생접미사 ‘-질’의 의미

#### 1. 전통적 의미 분류

접미사는 어기의 뒤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어기의 문법적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 어기의 의미를 첨가하기도 한다. 접미사는 접두사에 비하여 종류도 많고,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양상도 훨씬 다양하여 그동안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질’은 대표적인 접미사로 주로 사람의 행위나 성품, 직업 등 사람과 관련되는 파생어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파생접사의 의미보다 그 파생접사가 붙는 어기의 의미에 따라 파생어를 분류하였다. 이익섭·채완(1999: 106~017)에서는 ‘-질’ 파생어의 어기를 도구, 인체, 행위, 직업, 의성의태어, 동작성, 동사, 동물로 분류하였고, 파생접사 ‘-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2a, f, g)의 예를 제외하고는 ‘-질’ 파생어가 모두 비하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선생’처럼 비

하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명사조차도 ‘-질’이 붙으면 비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각 어기에 따른 분류 예는 다음과 같다.

- (2) a. 도구: 가위질, 낚시질, 도끼질, 부채질, 삽질, 젓가락질, 채찍질, 호미질  
 b. 인체: 결눈질, 손가락질, 발길질, 주먹질  
 c. 행위: 구역질, 동냥질, 싸움질, 양치질, 오입질, 충동질  
 d. 직업, 신분: 계집질, 도둑질, 무당질, 서방질, 선생질  
 e. 의성의태성 어근: 도리질, 딸꾹질, 버둥질  
 f. 동작성 어근: 곤두박질, 달음박질, 뽀박질, 숨바꼭질, 뜨개질  
 g. 동사어간: 누비질, 다듬질, 후리질  
 h. 동물: 꿀뚜기질, 나비질

송철의(1992: 166)에서는 (2d)의 ‘계집질, 서방질’의 경우는 ‘선생질, 무당질’과는 달리 ‘계집 노릇을 하는 행위, 서방 노릇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사 어간에 ‘-질’이 결합되는 ‘누비질, 다듬질, 후리질’의 경우도 ‘누비옷, 후릿그물’ 등에서 ‘누비’와 ‘후리’가 명사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어 동사어간에 직접 ‘-질’이 결합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꿀뚜기질, 나비질’도 어기가 동물 이름과 같기는 하지만, 각각 그 의미가 ‘곡식에 섞인 쪽정이·검불·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키를 부치어 바람을 일으키는 일’, ‘남을 욕할 때 가운데 손가락은 펴고 다른 손가락은 꼬부려 그를 향해 내미는 짓’으로 원래의 어기인 동물과는 상관없거나, 매우 떨어진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사어간이나 동작성 어근으로 분류되는 ‘곤두박질, 뜨개질, 숨바꼭질, 누비질’ 역시 한 행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도리질, 딸꾹질, 버둥질’도 어기가 어떤 행위의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송철의(2001: 78)에서는 ‘-질’이 가지는 어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 (3) a.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위질, 걸레질, 부채질  
 b.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손가락질, 주먹질  
 c.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일’, ‘그런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도둑질, 선생질, 싸움질, 담금질

- d.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 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물질, 불질, 풀질, 흙질
- e. 몇몇 의성어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딸꾹질, 수군덕질

이 분류는 현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쓰이고 있다. 이 분류 역시 어기 자체의 의미나 특징보다는 파생어 전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분류에서도 파생접사 ‘-질’ 자체의 의미가 중요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이나 ‘-기’와 같이 어기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 기능을 주로 하는 파생 접사와 달리 ‘-질’은 반복적, 지속적, 비하적인 의미가 파생접사 자체에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질’의 의미 특성을 좀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 형성 요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파생접사는 없지만, 의존 명사로 ‘-짓’이 있다. ‘-짓’은 흔히 버릇처럼 하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동작, 좋지 못한 행위나 행동을 나타낸다.<sup>9)</sup> ‘-질’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짓’과 어울리는 명사도 신체 부위(눈짓, 다릿짓, 엉덩잇짓)나 비하적인 의미(바보짓, 여우짓)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헛질’과 같은 의미로 ‘헛짓’이 쓰이고 있음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sup>10)</sup> 그러나 ‘-질’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의미가 ‘-짓’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이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의미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질’의 이러한 의미가 새로운 파생어에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또는 변화했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9)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제공 [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에서 검색.

10) ‘헛질이 접두사와 접미사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구성임에 비해, 접두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헛짓’은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2. 인터넷상의 신조어<sup>11)</sup>의 의미

## 1) 여기에 따른 분류

II장 3절에서 제시된 신조어는 ‘-질’이 취하는 어기의 범주가 훨씬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송철의(2001)의 분류에 따라 신조어를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sup>12)</sup>

<표 4> 신조어의 파생접사 ‘-질’이 취하는 어기의 의미 분류

(4)a. 도구	돈질, 디씨질, 디카질, 리모콘질, 마우스질, 삽질, 세이질, 싸이질, 옷대질, 인란질, 인터넷질, 자판질, 책질, 카드질, 카트질, 키보드질, 포샵질, 핸드폰질
(4)c. 행위 (직업)	감상질, 공부질, 그림질, 글질, 드라마질, 만화질, 문자질, 백수질, 사랑질, 애정질, 운동질, 음악질, 이혼질, 자랑질, 초당질, 춤질, 클릭질, 테러질, 팬질, 펌질

신조어 ‘-질’은 대부분은 명사형 어미를 취하고 있다. ‘클릭질’은 어기 ‘클릭’이 영어에서는 동사나 의성어로 쓰이고 있지만,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서 ‘클릭하다’로 받아들여져 명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펌질’은 동사 ‘푸다’가 연결 어미 ‘-어’와 결합하여 ‘퍼-’가 된 후, ‘퍼-’의 명사형에 파생접사 ‘-질’이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헛질’의 경우 ‘헛-’이라는 접두사에 접미사 ‘-질’이 결합하여, 어기가 없이 파생접사만으로 단어가 생성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질’ 신조어에는 외래어 어기가 매우 많아졌고, 대부분이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컴퓨터, 통신 분야와 관계된 어기임을 알 수 있다(39개 중 16개). 이것은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도구나, 핸드폰과 관련된

11) III장 2절의 ‘신조어’는 모두 ‘인터넷상의 신조어’를 의미한다.

12) 그러나 이 분류에는 ‘헛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파생어에서 어기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질’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두기로 하겠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 이름을 직접적으로 어기로 취한다. 이러한 것에 붙는 ‘-질’은 송철의(2001)의 분류에 따르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싸이월드, 세이클립, 카트라이더’ 등의 프로그램이나 게임은 유형의 도구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제작되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씨질, 세이질, 싸이질, 옷대질’ 등도 모두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기라고 하겠다.

‘클릭질’의 ‘클릭’은 그 자체로 유형의 도구가 될 수 없고,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3)c의 분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감상질, 공부질, 그림질, 사랑질, 팬질’ 등이 위 분류에 속한다.

신조어에서는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인간의 신체 부위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신체를 나타내는 많은 단어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구가 아닌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질’이나 의성어 어기 뒤에 붙는 ‘-질’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 분류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 ‘드라마질, 만화질, 그림질, 글질’ 등의 파생어가 취하는 어기가 과연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드라마나 만화는 ‘싸이월드’나 ‘포토샵’처럼 특정한 행위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행위나 직업,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 불, 흙’과 같은 형태가 있는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를 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새로운 ‘-질’ 파생어는 어기가 신조어이기 때문에 신조어가 된 것도 있고,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에 있는 어기와 결합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특히 과거에는 ‘-질’ 파생접사가 접미되지 않았던 ‘공부, 춤, 백수’ 등에도 ‘-질’이 자유롭게 접미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질’ 파생어의 신조어가 취하는 어기가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문물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 파생어는 기존에 있는 단어

〈표 5〉 어기의 신조어 여부에 따른 ‘-질’ 파생어의 분류

(5)a. 새로운 어기 <sup>3)</sup> 와 결합한 ‘-질’ 파생어	디씨질, 디카질, 세이질, 싸이질, 옷대질, 인란질, 초딩질, 카드질, 포샵질
(5)b. 기존에 있는 어기와 결합한 ‘-질’ 파생어	감상질, 공부질, 그림질, 글질, 드라마질, 돈질, 마우스질, 만화질, 문자질, 백수질, 사랑질, 삽질, 애정질, 운동질, 음악질, 이혼질, 인터넷질, 자랑질, 자판질, 책질, 춤질, 카드질, 클릭질, 키보드질, 테러질, 팬질, 폼질, 핸드폰질

와도 활발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이 사실은 파생접사 ‘-질’이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2) 인터넷상의 신조어에서의 ‘-질’의 의미 특성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기와 파생접사 중 어떤 부분이 의미적으로 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가위질, 걸레질’과 같은 단어의 경우 어기에 단순히 반복적인 행위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지만, ‘선생질, 계집질’과 같은 경우에는 비하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단어 자체를 비속어로 만드는 부분을 파생접사가 담당한다.<sup>14)</sup>

신조어에서 확인되는 ‘-질’은 기존의 ‘-질’ 파생 접미사가 가지고 있는 반복과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매우 확대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에 대해 언중은 대체적으로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싸이질’이나 ‘디씨질’, ‘옷대질’의 경우는 하루 종일 그 사이트에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습관적, 중독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카드질’의 경우도 무분별한 카드 사용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것이

13) 어기가 신조어나 아니냐의 여부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의 검색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5b) ‘기존의 어기’로 분류하였다.

14) 핵과 비핵, 함수자와 논항이라는 통사적인 개념을 통해 단어의 형태를 이해하려는 추가적인 논의가 최형용(2003)에서 이루어졌다.



며, ‘문자질’이나 ‘핸드폰질’도 무분별하고도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하의 의미는 ‘이혼질, 백수질’ 등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데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어기에 ‘-질’이 생산적으로 접미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2005: 139~140)에서는 단어의 기존 의미가 바뀐 예로 ‘돈질’을 제시하였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의 ‘돈질’의 의미는 ‘노름판에서 내기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행위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큰 돈을 뇌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sup>15)</sup> 이와 같이 의미가 바뀐 예로 ‘삽질’이 있다. ‘삽질’은 원래 ‘삽으로 땅을 파거나 떠내는 일’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였으나 지금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쓸모없는 노력,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질’의 비하적인 의미가 확대되어 파생어의 전체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질’은 ‘공부질, 그림질, 책질, 인란질<sup>16)</sup>’처럼 전혀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기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파생어들이 모두 마음에 차지 않는 차선의 선택임을 나타내는 조사 ‘(이)나’, ‘어설피, 지나친, 아직까지, 짓거리’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부사, 명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하다. 즉, 부정적인 문맥 내에서 ‘-질’ 파생어가 출현하는 것이다.

- (4) 책질이나 글질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소원이 없지만
- (5) 흑자는 열공, 흑자는 공부, 흑자는 스테디라 하는 공부하는 짓거리를 나는 그냥 공부질이라고 하기로 했다.
- (6) 회화부 녀석들 편하게 그림질이나 하고 있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15) 하지만 현재의 언중들은 ‘돈질’의 기존 의미를 모르고, 새로운 의미만 가지는 신조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삽질’의 기존 의미가 쉽고, 분명한 데에 비해 ‘돈질’의 기존 의미는 특수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돈질’은 ‘삽질’과는 달리 기존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하기보다는 새롭게 조어되어 사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돈질’의 기존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어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변화한 예로 들겠다.

16) ‘인란질’은 ‘인라인스케이팅질’의 줄임말이다.

‘공부한다’고 하는 것과 ‘공부질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 파생접사가 전체 파생어의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하적인 의미가 적용되는 어기가 훨씬 많아졌다는 것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무분별하고,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반작용이 언어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또 2차적으로 다른 어기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 특성은 ‘-질’ 파생어가 여러 가지 행위를 아울러 나타낸다는 것이다. ‘짜이질’이나 ‘인터넷질, 디씨질, 초딩질, 백수질, 팬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짜이질’이나 ‘인터넷질’은 파생어가 취하는 어기가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도구는 무형의 것으로 이러한 도구를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는 기존의 ‘걸레질, 부채질’보다 훨씬 다양하다. ‘짜이질’은 개인의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각종 아이템으로 공간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찾아가 방명록을 남기고, 덧글을 달고, 대화나 클럽 활동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인터넷질’ 역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검색, 메일 보내기, 자료 찾기 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초딩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인터넷 게시판에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을 쓰거나, 유치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초딩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팬질’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팬이 되어, 공연을 보러 다니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다 포괄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에 대해 명명적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복합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짜이월드’, ‘디씨인사이드’ 등의 프로그램을 ‘도구’로 해석하거나, 초등학생, 팬 등을 직업이나 신분으로 받아들여 기존의 파생어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질’ 파생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질’ 파생어가 두 개 이상의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만화질’, ‘음악질’, ‘책질’은 모두 ‘만화를 직접 그린다, 만화를 읽는다’, ‘음악을 만든다, 음악을 감상한다’, ‘책을 읽는다, 책을 쓴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표현에는 각

명사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통해 그 의미를 구분하지만, ‘-질’ 파생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서술어가 모두 ‘-하다’가 된다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너 뭐 하니?”라는 질문에 대해 “싸이월드에 사진을 올리면서 방명록에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미니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있어.”라는 대답을 “싸이질하다.”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질’은 복합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단어 형성 요소로 새롭게 지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생산되는 ‘-질’ 파생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파생접미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 보았다.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은 파생어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화자의 직관이 아닌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파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받아들인 바이엔(Baayen)의 방법은 파생어의 생성적인 면을 잘 포착하고 말뭉치를 사용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생산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세종 계획 기초 자료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850만 어절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를 분석했다. 또한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담고 있지 않은 최근(2004~2005)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그 용례를 조사함으로써 자료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질’ 파생어가 많은 형태에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단어를 많이 생산해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계량적 방식은 기존의 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직관과 반하는 결과가 일부 과정에서 드러나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용량의 말뭉치에서도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가 신조어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자료의 문제점과, 말뭉치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를 무조건 신조어로 여기는 방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말뭉치에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해도 신조어에서 제외하는 선별작업을 행하였다. 파생

어의 생산성 연구가 파생접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얼마나 언중의 동의를 얻고,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조사된 신조어 자료를 바탕으로, ‘-질’ 파생어가 가지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 ‘-질’의 의미를 연구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 파생어의 의미 분류와 특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그에 비해 새로운 단어들이 어떠한 의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신조어의 용례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인터넷은 하루에도 수백만 어절의 문어와 구어가 등록되는 개방형 말뭉치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질’ 신조어들이 신문기사, 소설, 개인의 일기, 게시판의 대화 등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었다.

새로이 나타나는 ‘-질’ 파생어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보인다. ‘-질’ 신조어에는 외래어 어기가 매우 많아졌고, 기존에는 ‘-질’과 결합하지 않았던 어기와도 폭넓게 결합하고 있었다. 특히 파생접사 ‘-질’은 기존의 반복적, 비하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를 매우 확대시켰다. 파생접사의 비하적인 의미가 그렇지 않은 어기와도 어울려 부정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현대 사회의 반복적, 습관적, 충동적, 중독적인 행위에 대해 ‘-질’이 폭넓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 신조어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한다. ‘싸이질, 디씨질, 초당질, 백수질’ 등에서 볼 수 있듯,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여러 가지 행위를 ‘-질’ 파생접사 하나로 아울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만화질’의 경우, ‘만화 보다, 만화 그리다’의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때, 서술어로는 ‘-하다’ 동사 하나만이 선택된다. 결국 모호한 현상에 대해 파생접미사 ‘-질’이 선택되고, 반대로 ‘-질’ 파생어가 애매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이 담당하고 있는 의미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차준경(1996), 「코퍼스, 파생어, 생산성」, 『인지과학』 7-2, 한국인지과학회, 21~38면.
- 구본관(1990), 「경주 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65~202면.
- 바이엔(Baayen, R. H.)(1989), *A Corpus Based Approach to Morphological Productivity: Statistical Analysis and Psycholinguistic Interpretation*, Amsterdam: Vrije University.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연구』, 태학사.
- \_\_\_\_\_(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숄팅크(Shultink, H.)(1961), Productiviteit als morfologisch fenomeen, *Forumder Letteren* 2, 110~125면.
- 이광호(2005), 「연결망과 단어 형성」, 『국어학』 46, 국어학회, 125~145면.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차준경(1995), 「한국어 파생어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접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참조 사이트>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제공 [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

21세기 세종 계획 홈페이지 <http://www.sejong.or.kr>

[www.daum.net](http://www.daum.net) (용례 검색)

[www.empas.com](http://www.empas.com) (용례 검색)

[www.google.com](http://www.google.com) (용례 검색)

[www.naver.com](http://www.naver.com) (용례 검색)

[www.yahoo.com](http://www.yahoo.com) (용례 검색)

## &lt;붙임: 신조어 ‘-질’ 파생어와 그 용례&gt;

‘-질’ 파생어	용례 <sup>17)</sup>
감상질	여행이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질이며 외부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공부질	혹자는 열공, 혹자는 공부, 혹자는 스테디라 하는 공부하는 짓거리를 나는 그냥 공부질이라고 하기로 했다. / 그럼 난 공부질 하러 간다.
그림질	회화부 녀석들 편하게 그림질이나 하고 있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2004 환상문학웹진 거울 단편선』 「그림」) / 그 오 년을 오직 난이어나 국화 따위 사군자 그림질로만 보낸 것은 아니었다. (『이청준 문학상 수상 작품집 (1)』 「날개의 집」)
글질	방안에 앉아 글질이 딱이지. / 참 간단에 와서 글질하고 가다.
돈질	日, 돈질한다고 이사국되는게 아냐. (경향신문 2005/12/01) / 이대량 영등포 일대를 헤매며 쇼핑=돈질 ... 을 하고 다녔더랍니다.
드라마질	계속되는 드라마질에 과도한 업무, 자꾸 다운되는 인터넷,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 주말인데도 참 거시기하게 수업 듣고 집에 들어와서 드라마질 하고 있다.
디씨질	디씨질 4년 다되어 가는 차에 이런질 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디카질	갤러리 음악회, 이루마, 그리고 디카질, 공연장 내에서 아직도 팔을 위로 뻗어서 디카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했다.
리모콘질	리모콘질 중에 어쩌다 실수로 저 부분만 뺐버렸다. / 오랜만에 두 방송사의 영화를 리모콘질 하면서 봐도 재밌을 것 같군요.
마우스질	어떠한 자세에서도 마우스질 할 수 있다. / 불과 몇천원의 투자로 마우스질 나아가 컴퓨팅이 즐거워지니 마우스패드도 추천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만화질	할 일은 많으나 하기 싫으면 이케 만화질이나 하구 있다. / 다음으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경제에 관한 정보도 훑릴 뿐더러 4컷 삽화 같은 간단한 만화질도 해보고 싶군.

17) ‘-질’ 파생어의 용례를 신문기사, 소설의 본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제시하였으나, 개인적인 글이나 친목도모용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메일질	업무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한 번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면 쉽게 끝날 일을 무수한 ‘메일질’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채팅·인터넷 때문에 ... 대화가 줄었어요, 한국경제 2005/11/16)
문자질	반 정원이 39명임을 감안하면 3분의 1 가까운 학생이 수업 중 이른바 ‘문자질’을 했다는 얘기가. (청소년 휴대폰 중독 「심각하다」, 매일경제, 2004/08/16)
백수질	보통 일주일에 3만원정도 벌어요. 그래서 이거로 백수질 좀 하려구요. 그냥 한달에 12만원이라도 게입하면서 벌면 통신비도 될 것 같고 뭐, 저 백수질 하면서 쓸 돈은 될 것 같아서요. / 미친 듯이 백수질 중 ...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밖에 두 번 나갔다.
사랑질	정말 아직도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질 타령이라니 질러버리겠군요. / 두 사람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사랑질 위에 도시를 날려버릴 위험이 있는 사이보그를 퇴치하는 대전투는 도무지 연결이 안 된다.
삽질	삽질은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며 뽀뿌질은 타인으로 하여 삽질을 하게끔 옆에서 부추기는 행위를 말한다. / *당, 정말 삽질하고 있다. 더운 밥 먹고 식은 말하고 있다. 아프지도 않은 다리에 침놓고 뜸질까지 한다. ([유시춘 컬럼] *당, 왜 모기한테 칼을 빼드니?, 테일리 서프라이즈, 2005/12/14 )
세이질	요새 또 다시 세이질에 빠졌다. 이거 돈도 안나오는 짓을 왜 하고 있노?
짜이질	기업들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짜이질’에 매달리는 데다,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자 잇따라 사내접속 자체를 차단,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 “근무중 ‘짜이질’ 하지마!”; 경향신문, 2004/05/20) / 영어로 짜이질이 뭔가요? 짜이질을 외국인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 답답해서요.
애정질	난 그냥 영화관이나 길거리에서 과도한 애정질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 너무 늦게 시작한 애정질이라 누군가는 이미 다 봤을 사진이라도 내 눈엔 이뻐보인다오.
운동질	2달째 운동질인데 왜 1kg도 빠지질 않는 걸까 / 아저씨는 하루 종일 낚시질 아줌마는 하루 종일 운동질? 그 부부의 하루는 늘 그렇다.
웃대질	선생님 학생이 수업시간에 웃대질 하고 있습니다.
음악질	음악 언저리에서 놀아보면 음악질하는게 한놈, 즉 한 분야이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것과 동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공선옥, 『잊을 수 없는 밥 한그릇』, 한길사, 2004) / 나의 어설픈 음악질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맘 잡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혼질	왜 연예인들은 뻑하면 이혼질인가 / 남이사 이혼질을 하든말든
인란질	여의도 부근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위를 열심히 인란질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 안전 인란질 하세요!
인터넷질	인터넷질은 점심시간에 식후 30분간에만 하거나 아예 회사에선 하지 마세요.
자랑질	여자들이 나 아니면 죽고 못살고, 그런 자랑질이나 하구 그래요. (이호철, 『이호철의 소설창작 강의』, 새갈마노, 2004) / 나는 지는 노을 바라보며 열심히 시베리아 언니 골탕 먹이기에 사용했던 나의 수법에 관해 자랑질 중이었고, 내 말에 범의 녀석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찬희, 『양큼한 이야기』, 로맨티카, 2002)
자판질	조선일보 인턴 준비하느라 아직까지 자판질이다. / 세 시간에 걸쳐 장안의 화제가 된 “관습헌법”에 대해 자판질을 했다.
책질	난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컵터질과 책질이니. / 책질이나 글질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소원이 없지만, 아무도 장담 못함
초딩질	‘게시판 같은데 돌아다니다가 초딩질 해 놓은 거 보면 짜증납니다.’ /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초딩질을 타치는 어른들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춤질	왜 허구헌날 춤질이야. / 가수면 노래나 부르지 왜 춤질인지.
카드질	난 기분이 우울할땐 카드질을 해야 한다는 승조양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 역시나 또 예산을 초과하는 카드질로 아픈 속을 부여잡으며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카트질	얼마동안은 계속 신나는 카트질이 계속 될거같다. / 늦게배운 스타, 카트질에 밤 새는 줄 모른다.
클릭질	선정적인 제목을 쓰면 클릭질 한번이라도 더할까 싶어서 / 음악적 역량이 배제된 채 기획사의 힘과 소녀 팬들의 클릭질이 주는 상
키보드질	음, 왜 쓰던 글이 단 한방의 키보드 질로 날아가 버린단 말인가.
테러질	이라크 테러질로 나라가 침울한데, 만화 보면서 한번 웃으시길. / 친하지도 않는 녀석의 방명록 테러질 때문에 왕 짜증이다.
팬질	왕년에 **팬으로서 심하게 고생해 본 경험 때문에 더 이상의 팬질은 사절이다. / 팬질에 관한 수다나 후기를 실컷 쓰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펼질	잘못된 펼질은 절도. 펼질은 링크보다 나쁜 행위다. / 펼질하기도 바쁘신데 출처표시를 하실 정성 같은 건 없었다고 치자.



포샵질	‘디카’ 덕에 필름 값이 안 드는 건 좋지만, ‘포샵질’을 해서 올리는 데 드는 품도 만만찮다. (“온라인은 세상과 끼 주고받는 내 핏줄”, 경향신문, 2003/10/06) / 디카로 찍은 사진들은 포토샵 작업으로(일명 포샵질) ‘업그레이드’ 되어 나온다. ([시민 기자석—고은주] 디카사진, 연출이 지나치다, 국민일보, 2004/07/19)
핸드폰질 (휴대폰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촬영장 구석에서 열심히 핸드폰질을 하고 있는 성진씨. / 맨날 핸드폰질에 뭐하나 시키면 바로바로 처리되는 게 없었다.
헛질	그야말로 간지러운 뺨 긁어주는 헛질 밖에 더 뭐니까. (송연수, 『카르발키아 대전기 2부 4』, 자음과 모음, 2003) / 지난해 9월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경찰은 헛질만 계속했다. (연쇄살인범 검거 ‘히늘이 도왔다’, 스포츠서울, 2004/07/18)